

산자부, 패키징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

상품을 포장하는 패키징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니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산업자원부는 12월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외 패키징분야 전문기관과 업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미래 패키징 신기술 국제심포지엄에서 패키징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관련기업들이 모이는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패키징산업 진흥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상품 개발과정에서부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연구·개발(R&D)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패키징산업은 최근 높은 수준의 디자인과 실용성,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면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생산액 15조원, 고용인원이 13만명에 이르는 산업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보조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육성되지 못했다.

행사에서 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 종합지원센터는 패키징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스웨덴의 패키징 연구기관 STFI 팩포르스크 및 패키징 클러스터인 패키징 아레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패키징 공동 연구와 인력, 기술정보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7/12/14>